

강이야기

2

River & Culture



이용수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수자원개발부
(lswater@dohwa.co.kr)

영산강 발원지 답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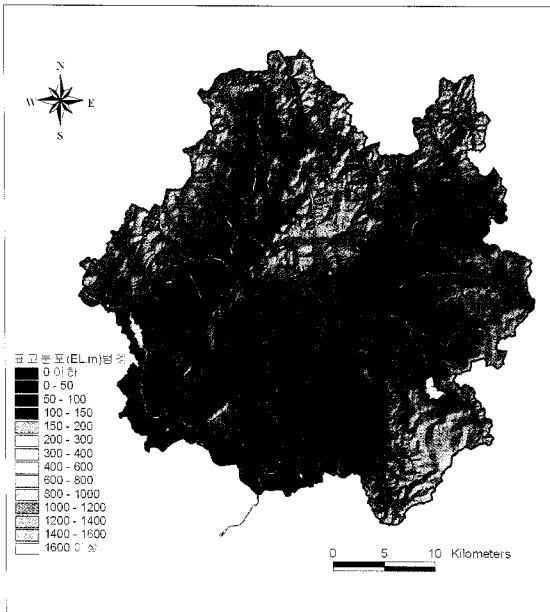
일시 2009년 2월 28일

1. 영산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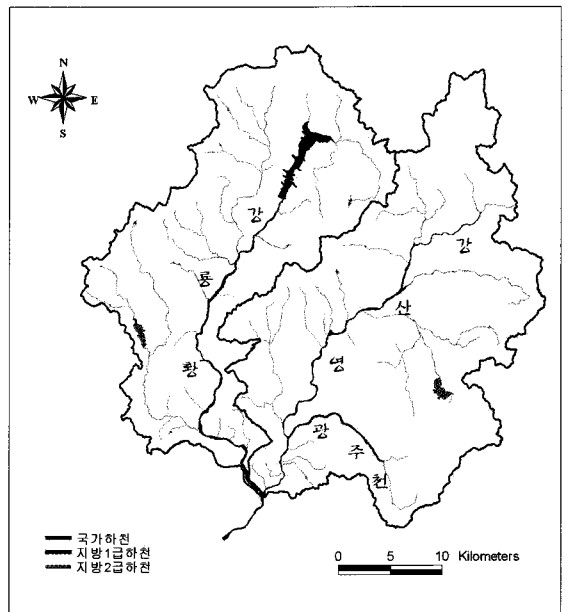
전라도를 대표하는 하천 중 전라도 동부를 대표하는 섬진강 다음으로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하천은 단연코 영산강이다. 호남의 젖줄이라 할 만큼 수많은 농경지가 주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목포, 나주 등 유역의 중심도시에는 고대로부터 다양한 문화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근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굽적굽적한 사건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유유히 서해 목포 앞바다로 흘러

가는 하천이 영산강인 것이다.

영산강은 발원지인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병풍산(EL. 807.2m) 북서계곡을 출발하여 월산 저수지부터는 북하천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 장성군 북하면을 북쪽으로 휘돌아 장성호에 유입되어 잠시 휴식을 취한다. 장성호를 지난 영산강은 이때부터 황룡강이라는 이름을 얻어 장성읍을 남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서쪽으로 지난 후 동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유계동)에서 비로소 영산강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하류로 내려간다. 이후 영산강은 나주시, 함평군, 무안



<그림 1> 영산강 표고분포도(황룡강 합류 이전)



<그림 2> 영산강 하천분포도(황룡강 합류 이전)



군을 거쳐 목포의 영산강 하구둑을 만나 잠시 지체하다가 서해로 빠져나간다.

영산강 하구둑은 길이 4,350m, 높이 19.50m, 저수량 250,000백만 m^3 으로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계획 2단계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건설되었다. 전라남도 목포시 동쪽 6km 지점, 무안군 삼향면 옥암리와 반대편 대안면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사이를 가로막은 토석제로, 1978년 착공, 1981년 12월에 완공하였다. 하구둑 위에는 6차선 도로가 건설되었으며, 목포시~영암군을 육로로 연결하고 있다. 영산강유역 개발 제1단계(장성호, 담양호, 나주호, 광주호 등의 완성)에 이어 추진된 이 2단계사업은 영산호에 저류될 풍부한 담수를 20,700ha의 농경지에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6개소의 양수장과 164km의 간선용수로를 건설하고 경지정리, 간척(5,500ha) 등의 후속사업이 1980년 말에 완성됨으로써 6,100ha의 농지가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56,000M/T의 쌀을 증산하였다.

영산강유역의 전체 유역특성을 알아보면 동경 126°26'5"~127°6'3", 북위 34°40'17"~ 35°28'58"에 걸쳐 한반도의 남쪽 서부지역에 위치하며, 유로연장은 134.95km, 유역면적은

3,469.58 km^2 이다. 영산강유역의 동쪽에는 섬진강유역, 남쪽에는 영산강남해권역, 서쪽에는 영산강서해권역, 북쪽에는 동진강유역에 접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총 유역면적 3,469.58 km^2 중 광주광역시 약 14.40%, 전라남도 약 85.48%, 전라북도 약 0.1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영산강유역의 총인구는 1,725천명 정도이며, 인구밀도는 497명/ km^2 이다. 유역내 총면적 중 산림면적은 1,649.25 km^2 로서 유역면적의 47.53%로 타 유역에 비해 산림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이다. 농경지면적은 1,360.46 km^2 로서 유역면적의 39.21%를 차지한다. 시가지면적은 230.94 km^2 로서 6.66%를 차지하며, 기타 초지, 수역 등이 유역면적의 6.60%인 228.93 km^2 를 차지한다.

‘영산강’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을까? 다음의 기사는 “희망연대”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것으로 영산강의 유래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하는 발표한 글 전문이다.

「영산강의 명칭 유래를 살펴보자. 먼저 강의 이름을 호칭할 때 강 유역 전체가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되어서 대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영산강 명칭의 경우 분류와 지류에 따라 수십 개의 명칭이 기록(대동여지도

등)에 등장한다. 즉,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이 부르는 명칭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주 동쪽 상류는 광탄강(廣灘江), 영산포 부근은 남포강(南浦江)·영산강(榮山江), 함평 쪽은 사호강(沙湖江), 더 남쪽으로 무안 쪽으로 내려와서 곡류하는 지역은 곡강(曲江)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동시대 어느 지역에서는 사호강이라고 부르고, 혹은 영산강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이다.

영산강의 명칭이 여러 개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영산강'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을까. 호남의 내륙을 관통하는 영산강은 예로부터 이 지역 수운(水運)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조선의 조창(漕倉) 가운데 하나인 영산창(榮山倉)이 영산포에 설치되었다. '창(倉)'이라는 것은 세곡(稅穀)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영산창은 조선 전기 9개의 지방창고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당연히 그 일대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주변의 강 이름을 '영산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물론 지명 유래에 하나의 정답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외에도 영산강 명칭에 대해서 다른 설화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영산강'이라는 이름은 깊은 뿌리가 있고 조선시대에도 사용된 명칭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영산포'와 관련되어 '영산강'이라는 이름이 불리었다는 그 유래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영산'이라는 지명 자체는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영산'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기록에는 고려 말엽 왜구들이 섬에 대한 노략질이 심해지자 흑산도 사람들이 나주 남쪽 남포강가에 피난 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을 '영산현(榮山縣)'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영산'은 '흑산'을 지칭하는 말이다.

고려 말엽 조선 초에는 이른바 '공도정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섬에 대한 왜구들의 침략이 빈번해지자 아예 섬을 비워버리게 하는 정책이다. 매우 소극적인 해양정책으로 고대에 융성했던 우리의 해양문화가 발전보다는 단절의 길로 들

어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당대 섬에 사는 사람들을 육지로 옮겨와서 살게 했다. 그때 지금의 신안군 흑산도(영산도) 부근 사람들이 나주 남포로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영산'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는 의미이다. 이런 자료를 통해 '영산포'나 '영산강' 모두 그 뿌리가 깊은 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산강이라는 명칭이 옛 기록에도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역사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사료에 그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중 영조실록(1725년 3월 25일) 기사에 정택하(鄭宅河) 상소문에서 '나주 영산강(羅州 榮山江)'이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오히려 사호강이라는 또 다른 영산강의 명칭은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도 김정호의 대동지지, 정약용의 경세유표,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옛 사료들에서 영산강의 명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강 유역 전체를 지금처럼 영산강으로 통칭하게 된 것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기라고 보여진다.

조선시대의 영산창은 이후 범성포에 범성창이 설치되어 옮겨졌고, 구한말 영산포는 한적한 작은 포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1897년 목포 개항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영산포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개항 당시 목포 거류지의 범위 내에 묶여 있던 일본인들은 한일병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개항장에 머물지 않고 보다 내륙 깊숙이 진출한다.

당초에는 육지에서 수확된 미곡을 목포를 통해서 침탈하는 상황이었다가 점차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소작인을 사서 농업에 종사하여 보다 큰 이익을 내기 위해 활동하는데 그 근거지가 바로 '영산포'였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나주 영산포에 일본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근대 영산포의 역사는 일제의 조선수탈과 함께 시작되어 일본인들의 상업적 필요성과 맞물려서 번성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목포와 함께 호남곡창의 수탈기지가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활동 무대인 영산포 부근의 강 명칭인 영산강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널리 사용했다고 보는 견해가 나오지 않으나 추정해 본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던 중 1929년에 일본인들이 만든 〈사적목포〉라는 책에 영산강 이름의 내력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 주목이 된다. 이 책은 당시 목포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목포유적에 대한 연혁과 설명을 풀어놓은 것이고, 발행시기 상 여러 면에서 식민사관이 반영된 책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첫 장의 제목은 “사호강(沙湖江)의 발선(發船)”이라고 해서 사호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사호(沙湖)는 영산강(榮山江)의 별칭이나 옛 이름”이라고 밝히고 “〈문헌비고〉(文獻備考) 같은 한국의 옛 기록에는 영산강(榮山江)이라고 기재되지 않았고 사호강(沙湖江)이라고만 기술(記述)되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영산강(榮山江)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조선시대 때 영산포(榮山浦)가 영산창(榮山倉)의 소재지가 된 다음이고 이곳이 전라남도의 공미(貢米) 집납지(集納地)였던 관계상 자연스럽게 선박의 출입이 빈번(頻繁)한데 기인(起因)한다”고 유래를 밝히고 있다.

일본인이 쓴 기록에 영산강이라는 명칭이 왜 유래되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¹⁾

영산강이라는 지명에 얽힌 전설로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옛날에 나주에 정 노인이 살았는데 그는 아무 근심이 없어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이를 전해들은 원님이 자신도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편한 날이 없는데 평민으로서 근심이 없으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정 노인을 불렀다. 그리하여 자신의 여의주를 주며 “그대가 기특하여 여의주를 주는 것이니 잘 보관하였다가 내가 보고 싶다고 할 때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정 노인을 보낸 후 원님은 사공에게 일러 정 노인을 배로 건네주며 여의주를 강에 빠뜨리도록 일을 꾸몄다. 여의주를 잃어버린 정노인은 근심걱정으로 몸져눕고 말았다. 한편 정 노인이 구슬을 강 속에 빠뜨렸다는 보고를 받은 원님은 정 노인에게 한 달 후에 여의주를 가지고 오라고 전하였다. 전갈을 받은 정노인은 곡기를 끊고 몸져누웠는데, 이를

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생각하여 잉어를 사서 정노인의 밤상에 올렸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정 노인이 잉어의 배를 가르자 자신이 물속에 빠뜨렸던 여의주가 잉어 배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정노인은 기뻐하며 원님을 찾아 여의주를 내놓자 이번에는 원님이 깜짝 놀랐다. 원님은 여의주를 찾은 내력을 듣고 감복하여 “과연 당신은 하늘이 낸 분이요”하며 자기가 꾸민 사실을 고백하고 후에 큰 상을 내렸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정노인은 잉어를 잡았다는 광탄강가에 글방을 세우고 그 이름을 며느리의 이름을 따서 ‘영산서원’이라 했고 이로 인해 이 강을 ‘영산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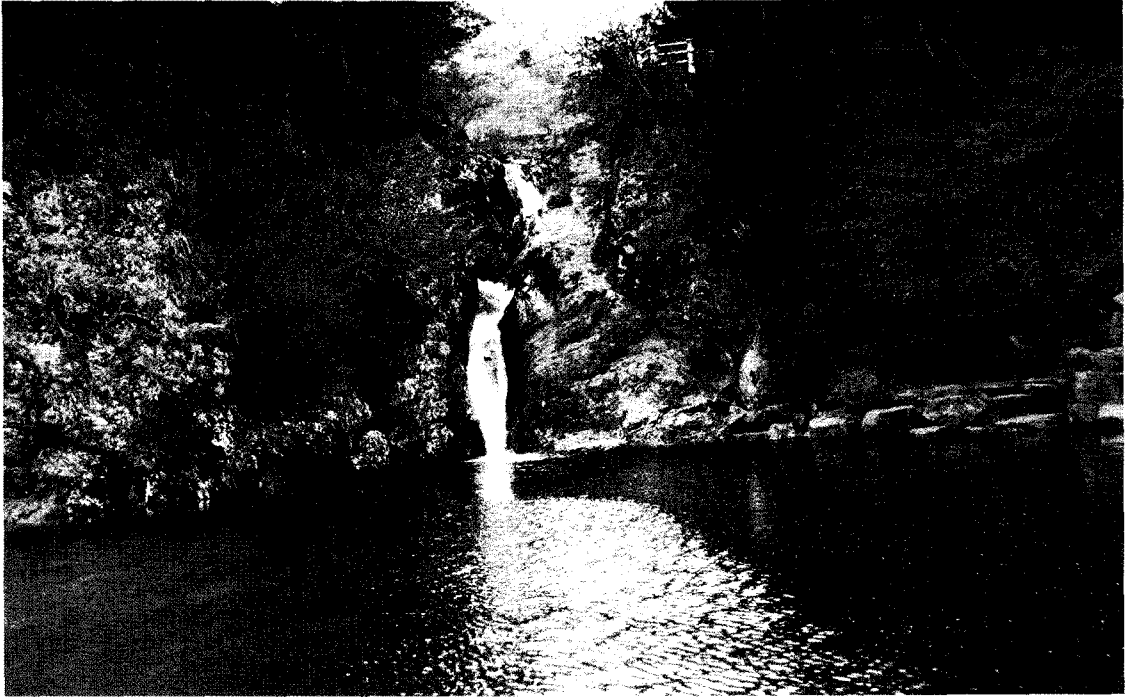
〈그림 3〉 대동여지도 상의 영산강(황룡강) 발원지 인근

문헌상에 있는 영산강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6권 장성현(長城縣)편의 산천조에 「황룡천(黃龍川) 일명 봉덕연(鳳德淵)인데, 단암역(丹巖驛) 동쪽에 있다. 백암산에서 나와서 진원현(珍原縣) 경내로 들어간다.」³⁾고 되어 있어 현재의 내장산 상옥봉 근처를 발원지로 보고 있다. 같은 책 제35권 나주목(羅州牧)편에는 「광탄(廣灘) 그근원이 여덟이다. 하나는 창평현 무등산(無等山)의 서봉학(瑞鳳壑)에서 나오고, 하나는 담양부(潭陽府)의 추월산(秋月山)에서 나오고, 하나는 장성현 백암산(白巖山)에서 나

1) 최성현 - 희망언대홈페이지 - <http://www.hopenews.or.kr/>

2) 남도여행 - 사산의 홈페이지에 실린 글중에서 - <http://www.sisun.net/g4/tour/>

3) 한국고전번역원 - <http://www.michu.or.kr/MAN/index.jsp>



오고, 하나는 노령(蘆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광산(光山) 무등산(無等山) 남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능성현(綾城縣) 여점(呂岾)의 북쪽에서 나온다. 이것들이 모두 주의 북쪽에 이르러 작천(鵲川)·장성천(長成川)과 합류하여 주의 동쪽 5리에 와서 광탄이 된다. 금강진(錦江津) 일명(一名) 금천(錦川), 목포(木浦)이며, 혹은 남포(南浦)라고도 한다. 곧 광탄의 하류인데 주의 남쪽 11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책 제39권 담양도호부(潭陽都護府)편의 산천조에는 「원울천(原栗川) 부의 북쪽 1리에 있으니, 용연(龍淵)에서 나와 부(府)를 싸고 북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창평현(昌平縣)의 죽록천(竹綠川)과 합하여 광산(光山)의 혈포(穴浦)로 들어간다. 용연(龍淵) 추월산(秋月山) 동쪽에 있는데, 사단(祠壇)이 있어 매년 춘추로 용(龍)에게 제사를 드린다. 날이 가물면 기우제를 지낸다.»고 되어 있어 나주를 흐르는 광탄(현재의 영산강)의 발원지가 여덟인데 백암산에서 나오는 황룡천과 담양의 추월산 용연에서 나오는 원울천이 나주의 북쪽에서 합하여 광탄이 되고 그 하류에는 사호강(沙湖江)으로 변하며 금천(목포)으로 흘러들어감을 알 수 있다.

조선중기 영·정조시대의 학자인 이긍익(李肯翊)이 지은

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 지리전고(地理典故) 총지리(摠地理)편에 있는 영산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나주의 영산강은 그 근원이 여덟이 있는데, 하나는 담양의 추월산(秋月山)에서 나오고, 하나는 창평(昌平)의 무등산 서봉학(瑞鳳壑)에서 나오고, 하나는 광주의 무등산에서 나와서 합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꺾어져 칠천(漆川)이 되며, 하나는 장성의 백암산에서 나오고, 하나는 노령 남쪽에서 나오는데 흘러가다가 합해서 선암도(仙巖渡)가 되며, 하나는 능주(綾州)의 여점(呂岾) 북쪽에서 나와서 화순의 물과 합해서 흐르다가 다시 남평(南平)을 둘러 서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영광 수연산(隨緣山)에서 나와서 작천(鵲川)이 되고, 하나는 나주 북쪽 도야산(都野山)에서 나와서 장성천이 되는데, 합해서 흐르다가 나주 동쪽에 이르러 광탄이 되고 나주 남쪽은 영산강이 되는데, 이 강의 본이름은 금강진(錦江津)이다. 다시 서쪽으로 흘러 회진강(會津江)이 되고 무안에 이르러 대굴포(大掘浦)가 되고 덕보포(德浦)가 되며, 남쪽으로 흘러 두령량(頭靈梁)이 되고 서쪽으로 흘러 영암해로 들어간다. 고려 때에 이 물을 거슬러 흐르는 3대강(三大江)의 하나라고 하였다.»고 적혀있어 동국여지승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나주 남쪽의 영산강을 회진강, 대굴포, 덕보포, 두령강 등의 순서로 영암해로 흘러들어가가기까지의 명칭 변화를 나열한 점이 다르다 하겠다.

대동여지도(김정호, 1861년)에도 백암산과 용구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대천교 지점에서 만나 황룡천이 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물론 영산강의 발원지는 담양의 추월산 밑에 있는 용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를 자세히 보면 담양 북쪽의 용천산(龍泉山)에서 흘러나와 북천이 되어 담양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용연에서 나오는 물과 만나 죽록천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보답사로 대강의 길이를 추정했기어서 고래로부터 용연을 발원지로 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다.

다음으로, 백과사전에는 영산강의 발원지를 어디로 보고 있을까?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것으로 백과사전을 살펴본바 먼저 야후백과사전에 영산강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용면(龍面) 용추봉(龍湫峰)에서 발원하여 서남해로 흘러드는 강.』⁴⁾이라고 되어 있어 담양의 용추봉을 발원지로 보고 있다.

브리태니커 사전을 인용한 다음 백과사전에는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병풍산(屏風山 : 822m)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여...』⁵⁾라고 되어 있어 병풍산을 발원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영산강에 대한 자료에는 담양의 용추봉을 발원지로 표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최장발원지를 표기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여 발원지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

2. 현지 답사

영산강 발원지가 담양의 용추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부터 발원지를 답사하고 싶어 기회를 보다가 2004년 4월 한번 답사를 하였다. 그때는 발원지 답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지 초기라 단순히 1/25,000 지도에 병풍산 인근의 계곡을 표

시하고 GPS 한 개만 달랑 들고 답사를 하였다. 용흥사 계곡의 좌측계곡으로 올라가서 천자봉에 다다른 다음 병풍산 꼭대기를 돌아서 다시 천자봉의 우측으로 해서 용흥사 계곡의 좌측으로 답사를 하였지만 정확한 발원지를 찾지 못하고 다만 발원지 인근의 지형만 답사한 꼴이 되었다.

금회 답사 때에는 일전에 답사한 용흥사 좌측계곡은 내려오면서 답사하기로 하고 우측계곡을 거슬러 답사하기로 마음먹고 준비를 하였다.

답사를 위하여 먼저 지형도와 internet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영산강(황룡강)의 발원지 인근하천을 조사하여 지도상 하천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지형도를 참조하면서 가상의 하천을 그린 다음 각 하천별로 길이를 측정하여 발원지 후보지를 정하였다. 지도상으로 보면 크게 용흥사를 기점으로 좌우측 계곡의 하천이 후보지가 될 수 있으나 작게는 좌우계곡을 다시 2개 지점으로 나누어 총 4개 지점의 발원지 후보지가 되었고 이를 현지답사를 거쳐 최장 발원지점을 확인한 다음 도상에서 이를 그대로 표시하고 다시 길이를 재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최장발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금회 답사계획은 1/5,000 수치지도를 입수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2009년 2월 28일 새벽 모든 준비를 갖추고 호남고속도로를 따라 내려가서 백양사IC에서 나와 용흥사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백양사IC에서 담양 쪽으로 포장도로가 확충되어 있어 길이 더 좋아졌다든 사실만 빼고는 2004년과 다른 점이 거의 없었다. 동일한 목적으로 일전에 한번 지나온 길이였기에 쉽게 용흥사 주차장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용흥사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장구를 챙기면서 GPS로 출발지점의 좌표를 확인하고 용흥사 우측계곡으로 들어섰다.

계곡은 상수원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와 함께 상수도 관으로 사용되는 PVC파이프가 어지럽게 계곡을 위에서 아래로 놓여 있었고 또 다른 파이프(경험상 고로쇠 수액 채취용)가 나무에 구멍을 내고 감싸 안으면서 이리저리 그물처럼

4. 야후백과사전 : <http://kdc.yaho.com/>

5. 다음백과사전 : <http://enc.daum.net/enc100>

계곡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첫인상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참고 계곡을 올라갔다.

최근에 시기적으로 전국적인 가뭄이 일어 우리나라 각 지방이 물이 모자란다고 난리들이지만 계곡의 물은 많기도 하지만 맑기도 거울 같아 시원한 바람과 함께 답사자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계곡을 올라가면서 주위를 살피니 2004년도에 올라갔던 용흥사 좌측 계곡과 유사하게 고로쇠나무와 산죽(조릿대)나무들이 울창했고 다만 3월 중순이라 아직 새싹이 돌아나지 않아 약간 삭막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계곡을 흐르는 물은 수량이 비교적 풍부했고 수질은 깨끗한 것으로 보였다.

약 1시간 정도 계곡을 오르는 동안 물은 계곡을 타고 계속해서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드디어 해발 440m 지점 지도상 하천이 시작되는 지점에 도달하니 물은 상류로 계속해서 흐르는데 아래 지역과는 달리 주위에 조릿대가 계곡을 넓게 덮고 있었다. 약간 더 올라가니 작은 폭포가 있고 여기서부터 지표수는 끊어져 있었고 하천형상만 남아 계곡을 타고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물이 많다는 증거인 이끼는 바위를 덮고 있어 상류로 하천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계속해서 올라가 병풍산을 오르는 안부 가까이까지 가니 바위틈에서 나온 물로 인해 고드름이 주렁주렁한 채로 바람을 맞고 있었다. 이쪽 계곡이 발원지라면 아마 저 바위 밑이 아닐까 생각했다. 좌우를 살피니 유사한 바위와 고드름이 여러 곳에 더 있었는데 일단 이 지점을 용흥사 오른쪽 계곡 발원점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능선을 타고 마루금에 올라 철사다리를 타고 병풍산 꼭대기를 올라 간 다음 가져온 점심을 먹고, 사진을 찍으려 주위를 살피며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병풍산 꼭대기에 올라 장성쪽 및 담양, 광주 쪽을 바라보니 열은 안개가 있어 자세히는 보이지 않으나 멀리 담양에서 광주 사이 넓은 평야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용흥사 쪽은 올라온 계곡과 그 아래의 용흥사, 더 아래의 월산저수지가 희미하게 보였다.

휴식을 취한 병풍산 정상에서 내려와 천자봉 쪽으로 향하였다.



〈그림 4〉 영신강 발원지

지금부터는 천자봉쪽(용흥사 왼쪽계곡)을 답사하여야 했다. 마루금을 지도를 살피 가며 몇 개의 작은 봉우리를 넘어 가다 천자봉 바로 아래부터는 지도를 참조하여 계곡으로 내려가 하천 발달상황을 확인하였다. 나무와 풀이 우거진 각 계곡을 답사하며 이리저리 살피며 천자봉 쪽을 향하니 드디어 천자봉 바로 아래의 해발 725m 지점 바위의 틈 사이로 고드름이 주렁주렁 있어 이곳을 천자봉쪽(용흥사 좌측계곡) 발원점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천자봉에 올라 주위를 살피고 사진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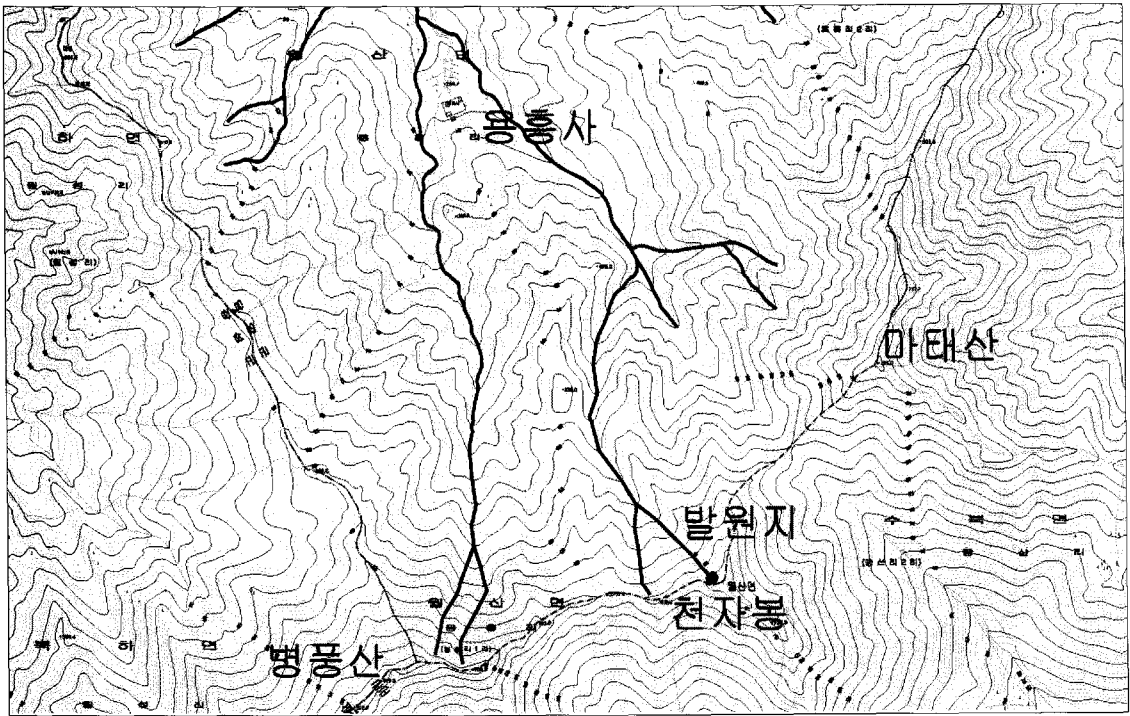
계곡을 내려오면서 지도상 하천의 끝지점, 지표면 흐름의 시작지점, 각 하천의 분기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려왔다.

2004년에 답사했던 지역이라 많은 부분이 기억에서 떠올랐다 특히 용흥사 가까이 내려와서는 버섯재배지와 하산 말미에 탁족(濯足)을 하던 바위까지 생각났다. 그때 고된 답사 길에 지친 발을 씻으면서 느낀 시원함이 아직도 몸 한구석에 남아 있는 것 같다.

집에 돌아와 답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에 표시를 하고 길이를 잰 결과 영신강 발원지는 담양군 월산면 병풍산 천자봉(EL. 748m) 아래의 커다란 바위 밑이며, 돌 틈 사이로 지하수가 흘러나와 고드름이 주렁주렁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정상까지는 바위를 끼고 올라가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이며 GPS로 좌표를 확인하니 북위 35°19'41", 동경

126°53'52"(GRS80좌표계)로 확인되었다. 이는 병풍산 정상
 쪽의 하천(용흥사 우측계곡)보다 약 90m 정도 길이가 더 긴
 것으로 계속되었다.

내려오면서 용흥사 경내를 둘러보니 용흥사는 백제 때 창
 건 되었고 그 뒤 수차례의 화재로 전소한 것을 최근에 복원
 한 절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절에는 보물(동종)과 지방문
 화재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



(그림 5) 영신강 발원지